

해남군 땅끝바다에서도 '개체굴' 출하 앞뒀

화산 중마도서 신소득 품종 개체굴 양식 '눈길' 현재 100g까지 성장...생존율 80% 높게 나타나

해남군 땅끝정바다에서 개체굴 양식에 성공해 출하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화산면 중마어촌계와 함께 신소득 품종인 개체굴 양식을 추진, 6개월여의 양식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 출하할 예정이다. 개체굴은 여러 개체가 덩어리로 자라는 일반 굴에 비해 껍데기 하나에 한 개체만 자라도록 채롱(그물망) 속에서 키우는 양식굴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일반굴에 비해 두배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외수출 등으로 소비되는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알맹이만 판매하는 알굴과 달리 껍데기째로 판매해 바코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체굴 양식에 추진, 중마도 일원에 지난 5월 76만㎡를 첫 입식하여 채롱수하식으로 양식에 성공했다.

채롱 수하식 방법은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 바다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수온 피해에 따른 폐사율도 낮아 개체굴 양식의 가장 적합한 양식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 개체굴은 현재 100g까지 성장했으며 생존율도 80%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약 61톤의 개체굴을 수확해 국내 판매 및 중국 수출할 예정이다. 킬로그램(kg)당 3,500원, 2억 1,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화산 중마도는 해남군의 대표적인 섬인 삼마도(삼마·중마·하마도)의 일부로 다도해의 청정 바다에서 김과 전복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명현관 해남 군수는 30일 화산 중마어촌계의 개체굴양식장을 방문하고, 현장점검과 함께 어업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중마어촌계의 성공적인 개체굴 양식으로 김과 전복 외에도 고소득 양식품종을 추가하게 되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개체

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고소득 어업 소득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2천여 명 동참' 홍보 특특

완도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연말을 맞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11월 27일 기준, 10월 대비 월간 기부 건수가 2.5배 가량 증가한 300여 건이 접수됐다. 올해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2,00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타 시군과의 상호 기부를 위해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지'를 제작·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에는 완도소방서를 방문하여 홍보물품 배부 및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을 홍보했다.

또한 '향우와 함께 인생네트 스티커 사진 찍기', '고향 사랑 추억의 뽑기' 이벤트 및 전담제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행사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랜딩 페이지(www.wandoloveir)를 제작하여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2023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장흥군은 11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장흥군에서 발굴되지 않은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 문화재 신규지정, 기타 안전 및 보존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문화유산은 지정 3건, 기타 1건으로, 이 가운데 위계동 초상과 갑실, 옥통소, 절룡소가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3건은 방촌유물전시관 전시 작품으로 2022년 추진한 목목화 작업을 통해 정리된 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방촌유물전시관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의 소장 유물 보존과 관리에 노력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관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논콩 재배 확대 위해 선진 현장 교육 가져

내년 논콩 면적 300ha까지 확대

강진군은 지난 30일, 내년 논콩 재배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논콩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콩 재배 농업인 등 56명이 국내 논콩재배 선진지역인 장성군 황룡면과 김제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콩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고, 콩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다.

논콩 재배 농가들은 장성군 황룡위탁영농조합회사 및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콩영농조

합법인 견학으로 논콩 작부 체계와 수해 대응 요령 등을 배우고 콩 선별 작업 등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15년 이상의 논콩 재배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 경험으로 축적된 교육을 통해 논콩 재배기술에 대한 의지가 한껏 고무되었다.

현장 견학은 국내 주요 논콩 재배 현장을 재배농가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영농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논콩 재배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논콩 재배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군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김제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을 벤치마킹해 논콩재배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황인준 농정과장은 "오늘 논콩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농가들이 많이 보고 배움으로써 벼 대체 작목 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논콩 재배농가들이 강진군의 새로운 농업 소득 창출로가 될 수 있도록 논콩 지원 신규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육류 소비 증대 등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쌀 공급과잉

현상을 방지하고, 벼 대체작목 육성, 농가 소득의 다양화를 위해 논콩 재배에 전략작물지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필지별 최고 40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등 논콩 재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2024년에는 배수 조건이 좋은 읍면, 칠랑면 등의 적합한 토질의 논지를 중심으로 올해 176ha였던 논콩 재배 면적을 3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논콩 재배농가의 재배여건 개선을 위해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논콩 파종기·제초기 등의 농기계 지원 등으로 논콩 재배의 장기적인 정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2023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성료

진도군이 2023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진도군이 후원하고 진도군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다문화가족 3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식전행사인 난타 공연, 어린이 한국무용 등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각 나라별 국기 입장식, 기념식, 명랑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다문화 전통놀이, 방한제 만들기, 양말

목공예, 개운죽 심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함께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기념식에서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 등 3명에게 다문화 사회통합 유공자 진도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명랑운동회가 진행된 오후에는 체육대회와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